【1】 西紀1980年3月4日 (火曜日) 1964年1月1日·登錄番號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55年10月13日 第3種郵便物認可 1954年6月20日創刊 第756號

東大新聞

發行人 鄭在和
編輯人 崔世榮
印刷人 方又三
主幹 洪起三
編輯局長 洪申翼
編輯部長 林翼斗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 8131~9
本社直通 ☎ 8577

每週火曜日發行

東國人의 矜持는 무엇인가

〈文理大교수·國文學〉 李 丙 疇

歷史가있는곳에 傳統이

역사가 없는 곳에 전통이 있을리 없다. 전통이 있는 곳에 矜持가 생겨나기 마련이다。그러나 아무리 「내 역사의 창조」를 위해 어제의 오늘이 수고로와도 전통이 부실하고 앞지기가 희미한 수많은 빛지는 수가 있다. 이를바 환경의 주수일로 잃어지는 造物의 전통이다. 이 심술궂은 歷史가 지금껏 우리에게 베풀어 온 것은 무엇인가。

역사가 없는 곳에 전통이 있을리 없다. 전통이 있는 곳에 矜持가 생겨나기 마련이다。그러나 아무리 「내 역사의 창조」를 위해 어제의 오늘이 수고로와도 전통이 부실하고 앞지기가 희미한 수많은 빛지는 수가 있다. 이를바 환경의 주수일로 잃어지는 造物의 전통이다. 이 심술궂은 歷史가 지금껏 우리에게 베풀어 온 것은 무엇인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참신한 내일을 꾸미는 가능력가 항상 새로운 것에 前進을 약속한다。제자리걸음이란 결국 後退를 자초하지 못하는 自慰에 불과하다。時代와 환경에 따른 進取性이 없다는 안프린 것이다。거기에 뭐기가 있을 수 없고 옹달이 있을수 없다。계승전통한 뿌에 피면의 호령이 들어올 리가 없다。

우리는 74년의 역사를 헤아리다。 悔불은 전통에 자랑도 날다드다며 淨化된 세워진 올리므로 놀랍다。거기에 갈무려진 難正의 美才도 날부럽지 않다。

특히 新聞로 다져진 탄탄의 전신은 실로 놀라운 바가 있다。

그러나 부끄러운 역기를 들추어 우리의 무능을 나타내고 싶지는 않다。모두가 내 탓이기 보다는 남의 탓이 더 크다 하겠다。본분과 사명을 다하는 것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사실 역사가 행복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자랑될 수는 없다。거기에 따르는 전통의 실마리가 더불어 향상 발전하는 것에 중지는 점이 바로 나타나야 한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참신한 내일을 꾸미는 가능력가 항상 새로운 것에 前進을 약속한다。제자리걸음이란 결국 後退를 자초하지 못하는 自慰에 불과하다。時代와 환경에 따른 進取性이 없다는 안프린 것이다。거기에 뭐기가 있을 수 없고 옹달이 있을수 없다。계승전통한 뿌에 피면의 호령이 들어올 리가 없다。

우리는 74년의 역사를 헤아리다。 悔불은 전통에 자랑도 날다드다며 淨化된 세워진 올리므로 놀랍다。거기에 갈무려진 難正의 美才도 날부럽지 않다。

특히 新聞로 다져진 탄탄의 전신은 실로 놀라운 바가 있다。

그러나 부끄러운 역기를 들추어 우리의 무능을 나타내고 싶지는 않다。모두가 내 탓이기 보다는 남의 탓이 더 크다 하겠다。본분과 사명을 다하는 것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사실 역사가 행복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자랑될 수는 없다。거기에 따르는 전통의 실마리가 더불어 향상 발전하는 것에 중지는 점이 바로 나타나야 한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참신한 내일을 꾸미는 가능력가 항상 새로운 것에 前進을 약속한다。제자리걸음이란 결국 後退를 자초하지 못하는 自慰에 불과하다。時代와 환경에 따른 進取性이 없다는 안프린 것이다。거기에 뭐기가 있을 수 없고 옹달이 있을수 없다。계승전통한 뿌에 피면의 호령이 들어올 리가 없다。

우리는 74년의 역사를 헤아리다。 悔불은 전통에 자랑도 날다드다며 淨化된 세워진 올리므로 놀랍다。거기에 갈무려진 難正의 美才도 날부럽지 않다。

특히 新聞로 다져진 탄탄의 전신은 실로 놀라운 바가 있다。

그러나 부끄러운 역기를 들추어 우리의 무능을 나타내고 싶지는 않다。모두가 내 탓이기 보다는 남의 탓이 더 크다 하겠다。본분과 사명을 다하는 것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사실 역사가 행복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자랑될 수는 없다。거기에 따르는 전통의 실마리가 더불어 향상 발전하는 것에 중지는 점이 바로 나타나야 한다。

역사속에 傳統生動할때 自利의 信實·攝心·利他의 慈愛·度量도 校訓삼아 가져

역사의 흐름에 따라 참신한 내일을 꾸미는 가능력가 항상 새로운 것에 前進을 약속한다。제자리걸음이란 결국 後退를 자초하지 못하는 自慰에 불과하다。時代와 환경에 따른 進取性이 없다는 안프린 것이다。거기에 뭐기가 있을 수 없고 옹달이 있을수 없다。계승전통한 뿌에 피면의 호령이 들어올 리가 없다。

우리는 74년의 역사를 헤아리다。 悔불은 전통에 자랑도 날다드다며 淨化된 세워진 올리므로 놀랍다。거기에 갈무려진 難正의 美才도 날부럽지 않다。

특히 新聞로 다져진 탄탄의 전신은 실로 놀라운 바가 있다。

그러나 부끄러운 역기를 들추어 우리의 무능을 나타내고 싶지는 않다。모두가 내 탓이기 보다는 남의 탓이 더 크다 하겠다。본분과 사명을 다하는 것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사실 역사가 행복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자랑될 수는 없다。거기에 따르는 전통의 실마리가 더불어 향상 발전하는 것에 중지는 점이 바로 나타나야 한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참신한 내일을 꾸미는 가능력가 항상 새로운 것에 前進을 약속한다。제자리걸음이란 결국 後退를 자초하지 못하는 自慰에 불과하다。時代와 환경에 따른 進取性이 없다는 안프린 것이다。거기에 뭐기가 있을 수 없고 옹달이 있을수 없다。계승전통한 뿌에 피면의 호령이 들어올 리가 없다。

우리는 74년의 역사를 헤아리다。 悔불은 전통에 자랑도 날다드다며 淨化된 세워진 올리므로 놀랍다。거기에 갈무려진 難正의 美才도 날부럽지 않다。

특히 新聞로 다져진 탄탄의 전신은 실로 놀라운 바가 있다。

그러나 부끄러운 역기를 들추어 우리의 무능을 나타내고 싶지는 않다。모두가 내 탓이기 보다는 남의 탓이 더 크다 하겠다。본분과 사명을 다하는 것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사실 역사가 행복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자랑될 수는 없다。거기에 따르는 전통의 실마리가 더불어 향상 발전하는 것에 중지는 점이 바로 나타나야 한다。

東國은 自我完成·衆生濟度의 大學이 理想과 抱負의 쟁취위한 터전이 道場

自主獨立의 긍지로 慈悲와 濟度로 단련된 文學, 政·經의 전통이어야

東國의 先驅는 외롭지 않다

社 告

男女修習記者募集

1학년 대상, 20일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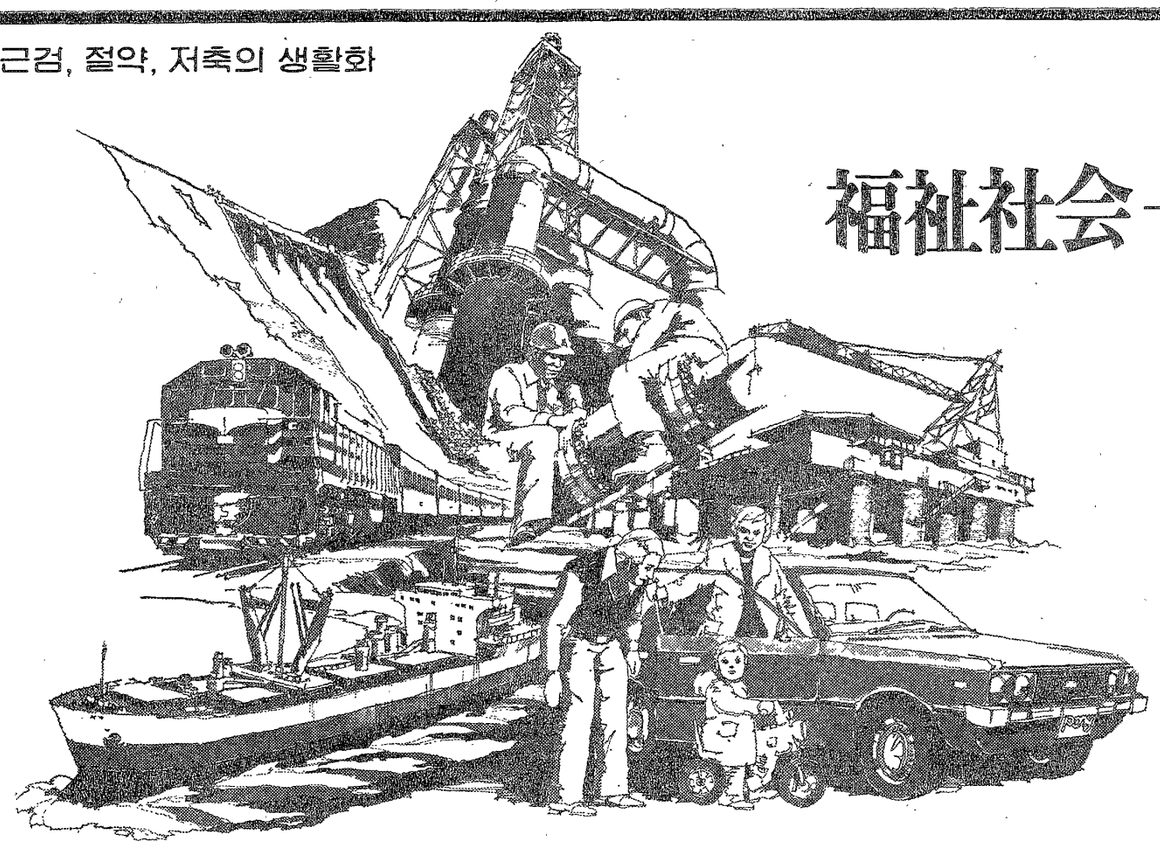
유능한 기자를 찾습니다

①募集人員 : 약간명 (慶州大제의)
<일반·寫眞·컨퍼런스>
②應募資格 : 本校 1學年 男女在學生
③제출서류 : 본사 소정양식 1통 (배부중) 명함판사진 1매
④원서접수 : 80年 3月6日~3月20日
⑤시험일자 : 80年 3月 22日 (土)
⑥시험과목 : 國語(상식포함)·英語·作文·面接 (사진기자는 실기포함)
⑦제 출 처 : 본사 총무부
※學生記者에겐 規定에 의하여소정의 급료와 장학금을 지급함
※시험시간및 장소는 추후 본보에 발표.

1980年3月 日

東大新聞社

근검, 절약, 저축의 생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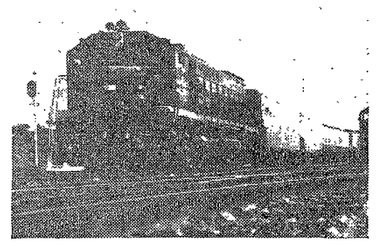


福祉社会—우리 모두의 所望입니다

重工業 발전으로
福祉社会 건설,
그것은 우리의 信念입니다.

現代는 国内外에서
誠実하게 땀흘리며
우리 모두의 所望을
하나씩 実現해 나가고 있읍니다.

1899년 9월 우리나라 鉄道가 처음 부설된 지 80년만인 1979년 8월 現代 기술진에 의해 제작되어 京釜線에 투입된 現代의 国産디젤기관차 1号.



現代

새학기에 붙인다

人事

本校를 비롯하여 전국의 各대학들은 이달부터 새학기를 맞게 되었다. 새학기를 맞게 되면 3월부터 의례 년간으로 의 新學期가 시작된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러나 이미 다달고 있다시피 학기는 종래와는 다른 精神과 방법에서 맞는다고 말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올해는 民主政治의 발전을 위한 改正作業을 비롯해서 한반에 대한 改正作業을 위시하여 학원을 둘러싼 주변환경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욱 학업에 專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학원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당국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원의 안정은 학교당국만의 노력으로 이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 자신이 학업에 충실하려는 의욕과 노력이 없이는 학원의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 학생들은 학업에 충실하려는 의욕과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학원의 안정을 위한 학생들 자신의 자율적인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새 學年 學期를 맞게 되면 그에 따라 여러가지 現象이 생기게 마련이다. 學園질서가 大學의 造成도 또한 相應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學生의 機能을 도한 이제에 맞는 새로운 秩序가 形成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勉學雰圍氣 조성을 통하고도 급한 문제는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오늘 大學街의 自由의 바람이 일치면 열마든지 뒤숭숭한 학생의 活動에 일정한 制限이 가해 있다고 여겨지기에 학생들은 조용히 공부하고 있다고 여겨지기에 학생 가운데 많은 불만을 품고 있다고 보지않을수 없다. 그러나 그 自由가 무질서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다. 학생의 자유란 책임과 秩序가 있는 바탕위에 서있어야 하기때문이다. 무질서한 無制限의 없을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自由란 한반 制限이 없을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自由란 한반 制限이 없을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自由란 한반 制限이

韓国史에 나타난 民衆運動

3·1運動과 民衆의 의지

<1>

○…오랜歷의 역사를 통해 어제면 인자와 책임의무가 평등한 삶았던 이 한의 백천들. 그리○
○…나 이 일련의 백천들이야말로 우리의 역사를 많이○ 움직이고 살찌게 한 주체의 그○
○…우리에 다름이다. 이제 복지에서는 이들 민중이 우리 역사에서 담당했던 몫을 찾고○
○…그 의미를 되새겨 80년대의 새 역사를 엮는 거름으로 삼고자 한다. 애독자 여러분들○
○…의 많은 성원과 조언을 바란다.

①3·1운동과 민중의지
②동학혁명
③조선후기의 민중운동
④고려시대의 민중운동
⑤한국사속의 민중의 힘
⑥現代의 민중운동

<편집자注>○

民衆運動의 본수령、國是의 基底

實學、開化、東學、斥邪사상의 융합

집촉 과정서 獨立 意志로 具體化

李 炫 熙
〈誠信女大교수·韓國史〉

獨立意志의 구체화와 思想的 機起, 일제 帝국주의 韓民族의 슬기이기도했던 1919년 3월1일(토요일)에 폭발하기 시작한 독립만세운동은 그 이전부터 내재적으로 성숙발전되어온 전통적인 韓民族의 독립의지와 그 사상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며 1945년 8월15일 민족의 光復時까지 그 의지와 이념을 계승지속되였던 것임을 먼저 밝혀야될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理論한다면 우리의 독립정신은 日帝侵略者들이 언필칭 주장한 바 「日鮮同祖論」이나 「日鮮一體論」의 「體系」가 아니고 오랜 전부터 민족의 뿌리가 자랐다는 점을 명백히 제시할 수 있었지 이다.

이의 사상적인 배경은 현실에 대한 철저 응답이기도하였던 自發·批判·反省을 본질로한 16·7세기의 「實學思想」의 近代지향적인 민족의식 자장이념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여러가지 어려운 고비와 계기를 거치는 동안에 19세기 후반기에 성숙·발전하기 시작한 「開化思想」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는 人脈 혈연面에서 확실히 그렇게 연결되었다고 자료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다시 시대적 조류와 세계사적인 발전의 추세에 따라 20세기의 「獨立思想」이 태동하게 되었다는 민족의 역사적 맥락이 있다.

즉 조선후기 실학자 朴趾源의 영향을 韓末開化思想家인 朴珪壽가 이어받고 박규수의 문하에 金玉均、朴泳孝、金道韓、金允植등 변개화계층이 싹트게되면서 이들 개화인사 및 정치인들이 「實學思想」을 「開化」와 「獨立思想」으로 연결하고 朴殷植、申采浩、李鎭一、날공 연동 독립운동가들이 사상하거나 싹트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근대 민족운동은 전개되었다.

이렇게 민족의 역사적 맥락이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하여 체계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거니와 民衆의 독립운동을 日本등 외세침략 등가들에 저항의 식을 그때 그때 전통적으로 연결시켜 왔음을 주목하게 되었을 때 3·1운동은 이러한 민족운동의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3·1운동은 내재적으로 성숙·발전되어 온 자주 독립의 意志가 폭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民族國家 즉 국민국가의 형성을 최대의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3·1 독립운동의 뜨거운 정신적 자산이고

大學敎育改革의 動向

大學은 社會의 文化傳達·創造機能도 수행

敎育改革에 참여한 大學이 實驗大學 지양돼

制度改革·여건의 改善만이 大學發展 의미하진 못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는 大學敎育改革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 움직임은 제반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必然的인 일이겠으며, 이같은 敎育改革의 움직임을 우리나라에서는 大學敎育改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實驗大學制度는 1973년이후 현재까지 43개·대학이 실시하고 있으나, 大學敎育改革의 대표적이고 급진적인 변혁으로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많은 부작용도 유발시키고 있다. 80학년도부터 政府는 敎育改革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大學敎育의 正常化가 점진적으로 이뤄지도록 전大學人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술부·부장 · 교수 · 학생부 · 기자 · 李 憲 金>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는 大學敎育改革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 움직임은 제반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必然的인 일이겠으며, 이같은 敎育改革의 움직임을 우리나라에서는 大學敎育改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實驗大學制度는 1973년이후 현재까지 43개·대학이 실시하고 있으나, 大學敎育改革의 대표적이고 급진적인 변혁으로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많은 부작용도 유발시키고 있다. 80학년도부터 政府는 敎育改革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大學敎育의 正常化가 점진적으로 이뤄지도록 전大學人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는 大學敎育改革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 움직임은 제반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必然的인 일이겠으며, 이같은 敎育改革의 움직임을 우리나라에서는 大學敎育改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實驗大學制度는 1973년이후 현재까지 43개·대학이 실시하고 있으나, 大學敎育改革의 대표적이고 급진적인 변혁으로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많은 부작용도 유발시키고 있다. 80학년도부터 政府는 敎育改革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大學敎育의 正常化가 점진적으로 이뤄지도록 전大學人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改革의 背景

大學이 學生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갈 것인지는 대체로 대학마다의 敎育 모토그램 (敎育課程) 에 의해 좌우된다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大學은 그 性格上 社會의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어서는 안되고 社會의 文化傳達과 創造의 기능을 수행하여야만 할것이며 그 기능 수행能力의 源泉은 일차적으로 敎育課程에 內在되어있다고 볼수있다. 기 시작한 大學敎育 개혁의 움직임은 종래의 방식대로 부분적이고 완만한 개선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는 대폭적이며, 質보에 있어서는 急進的이라고 할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개선은 그 변동 폭 안에서의 개선이 아니라 그 틀 자체를 재편하자는 것이 다. 이러한 종래의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개선으로는 社會의 구조와 기능과 요구가 변화됨에 따라 敎育課程이 개선되어야만 할것이다.

大學의 敎育課程은 社會의 변화에 따라 敎育內容이 개선되어야만 하는 것은 그 能力의 源泉을 일차적으로 敎育課程에 內在되어있다고 볼수있다. 기 시작한 大學敎育 개혁의 움직임은 종래의 방식대로 부분적이고 완만한 개선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는 대폭적이며, 質보에 있어서는 急進的이라고 할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개선은 그 변동 폭 안에서의 개선이 아니라 그 틀 자체를 재편하자는 것이 다. 이러한 종래의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개선으로는 社會의 구조와 기능과 요구가 변화됨에 따라 敎育課程이 개선되어야만 할것이다.

따라서 이 敎育課程은 社會의 구조와 기능과 요구가 변화됨에 따라 敎育內容이 개선되어야만 할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개선은 그 변동 폭 안에서의 개선이 아니라 그 틀 자체를 재편하자는 것이 다. 이러한 종래의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개선으로는 社會의 구조와 기능과 요구가 변화됨에 따라 敎育課程이 개선되어야만 할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개선은 그 변동 폭 안에서의 개선이 아니라 그 틀 자체를 재편하자는 것이 다. 이러한 종래의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개선으로는 社會의 구조와 기능과 요구가 변화됨에 따라 敎育課程이 개선되어야만 할것이다.

따라서 이 敎育課程은 社會의 구조와 기능과 요구가 변화됨에 따라 敎育內容이 개선되어야만 할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개선은 그 변동 폭 안에서의 개선이 아니라 그 틀 자체를 재편하자는 것이 다. 이러한 종래의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개선으로는 社會의 구조와 기능과 요구가 변화됨에 따라 敎育課程

써클, 그 실태와 문제점

○ 활발한 학생활동 없이 내세워지는 대학의 활성화란 ○
○ 사상누각이다. 大學이 폐쇄사회에서 개방사회로 넘어오는 ○
○ 관문이라 규정지을 때 大學人들은 참다운 개방이 무엇이며 ○
○ 대학이 요구하는 진정한 학생활동이 무엇인가를, 써클활동등을 통 ○
○ 해 음미하며 영위할 수있다. 써클활동이 위축되거나 부진할 경우 전 ○
○ 반적인 학생활동은 침체될 것이며 극복하기 힘든 파국까지 초래할 것이 ○○
○ 다. 이러한 점에서 본교 41개 써클에 대한 활동실태를 살펴본다. 할 ○
○ 등상황과 예산문제, 바람직한 써클활동이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하려 ○
○ 함이다. 학생활동의 活性化를위해 그 實相을 올바로 파악하고 적 ○
○ 절한 방향을 모색하여 대학의 학생활동을 통해 도전에 대한 ○
○ 응전의 지혜를 체득하려는 새 동국인들에게 자그마한 지 ○
○ 표로 남기려 한다. <편집자註> ○

Ⅰ 현 황

써클이란 同好人들의 모임으로 목표를 정립, 활동함으로써 학술, 문화활동을 통한 인격완성을 돌봄, 더 나아가 지역 사회 봉사와 학교,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다。

써클을 관장하는 부서로 재동록 기간이 지나가지 않은 80년3월 현재 존하는 써클은 총41개로 학생활동의 산실로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 41개 써클중 「국악을 회」는 정권교체후 사실상 자진 폐쇄되었으며 실제의 써클수는 40개인 셈이다。

지난 54년「東國文學會」의 첫인가이래 꾸준히 정착해 온 이들 써클들은 학보사등단 산하 8개부서중 종교부소속이「불교학생회」등 3개써클, 문예부 소속이「민속극 연구회」등 20개 써클, (연구실 8개포함), 「국악을 회」, 체육부 소속으로「궁」회 등 13개 써클, 체육부 소속으로「검」회 등 5개써클로 4개부에 분류, 소속되어 있다。

본교의 전체학생수 써클에 가입, 써클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수는 총1천8백86명으로 전체 학생수의 약 20%에 달한다。

부서별 분류인원현황을 살펴보면 종교부 3백89명, 문예부 8백60명, 사회부 5백89명, 체육부 1백48명이다。3개써클만이 소속되어있는 종교부는 써클수에비해 회원의 많은 편이어서「불교학생회」가 2백40명,「써클회」가 75명, 「불교합창단」이 74명으로 회원이 가장 많다。

부서에 분류, 소속되어 있는 써클의 활동상황을 개괄해 보면 본교의 전체학생수 1천8백86명으로 전체 학생수의 약 20%에 달한다。

부서별 분류인원현황을 살펴보면 종교부 3백89명, 문예부 8백60명, 사회부 5백89명, 체육부 1백48명이다。3개써클만이 소속되어있는 종교부는 써클수에비해 회원의 많은 편이어서「불교학생회」가 2백40명,「써클회」가 75명, 「불교합창단」이 74명으로 회원이 가장 많다。

부서별 분류인원현황을 살펴보면 종교부 3백89명, 문예부 8백60명, 사회부 5백89명, 체육부 1백48명이다。3개써클만이 소속되어있는 종교부는 써클수에비해 회원의 많은 편이어서「불교학생회」가 2백40명,「써클회」가 75명, 「불교합창단」이 74명으로 회원이 가장 많다。

「남녀평등」구호만 요란했지 실제 남자회원 20명, 여자회원 3명66명으로되어있다。

「남녀평등」구호만 요란했지 실제 남자회원 20명, 여자회원 3명66명으로되어있다。

여자회원은 전체 써클가입자중 불과 20%로 불과하다。

여자회원은 전체 써클가입자중 불과 20%로 불과하다。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남녀평등」구호만 요란했지 실제 남자회원 20명, 여자회원 3명66명으로되어있다。

「남녀평등」구호만 요란했지 실제 남자회원 20명, 여자회원 3명66명으로되어있다。

여자회원은 전체 써클가입자중 불과 20%로 불과하다。

여자회원은 전체 써클가입자중 불과 20%로 불과하다。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써클은 전부회원 목적으로 삼는다。

써클은 전부회원 목적으로 삼는다。

여합을 명목적 목적으로 삼는다。

여합을 명목적 목적으로 삼는다。

써클을 신규분류및 재동록 기간이 아직 다가오지 않은 80년3월 현재 존하는 써클은 총41개로 학생활동의 산실로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써클을 신규분류및 재동록 기간이 아직 다가오지 않은 80년3월 현재 존하는 써클은 총41개로 학생활동의 산실로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 41개 써클중 「국악을 회」는 정권교체후 사실상 자진 폐쇄되었으며 실제의 써클수는 40개인 셈이다。

이 41개 써클중 「국악을 회」는 정권교체후 사실상 자진 폐쇄되었으며 실제의 써클수는 40개인 셈이다。

지난 54년「東國文學會」의 첫인가이래 꾸준히 정착해 온 이들 써클들은 학보사등단 산하 8개부서중 종교부소속이「불교학생회」등 3개써클, 문예부 소속이「민속극 연구회」등 20개 써클, (연구실 8개포함), 「국악을 회」, 체육부 소속으로「검」회 등 13개 써클, 체육부 소속으로「궁」회 등 5개써클로 4개부에 분류, 소속되어 있다。

지난 54년「東國文學會」의 첫인가이래 꾸준히 정착해 온 이들 써클들은 학보사등단 산하 8개부서중 종교부소속이「불교학생회」등 3개써클, 문예부 소속이「민속극 연구회」등 20개 써클, (연구실 8개포함), 「국악을 회」, 체육부 소속으로「검」회 등 13개 써클, 체육부 소속으로「궁」회 등 5개써클로 4개부에 분류, 소속되어 있다。

실로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目標

政治發展에 맞춘 學園自律化 政策에 따라 學則中 非民主主義的인 요소를 제거, 민주적인 학칙으로 改正하며 학생들의 수업및 학생 자치활동에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지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方針

①總長의 職權인 退學命令權을 削除함.
②총장의 직권인 休學命令權을 삭제함.
③학생 服裝規定條項을 삭제함.
④退學者의 復校禁止規定을 일부 완화함.
⑤學生活動의 制限條項을 완화함.
⑥學徒護國團을 학생自治機構로改編.

効果

①정부의 긴급조치 위반으로 퇴학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復校조치를 취할수 있다.
②학생들의 자치활동에 자율성을 부여할수 있다.
③학생지도에 원활을 기할수 있다.

內容中 削除條項

제11장 (休學 復學 퇴학과 제적) 제47조 (휴학) 제5항=학점 또는 등록이 불량하여 불명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총장이 직접 휴학을 권할수 있다.

第13章 (規律·懲戒·褒賞) 第57條 (服裝)=학생은 本대학교에서 정하는 교복과 교표를 착용하고 교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학원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회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장 제59조 제3항=제1항 제4호 및 제20장의 단지조항을 위하여 직접 퇴학을 권할수 있다.

제20장 제85조 (학생지도)=총장은 매학년초에 학생의 지도지침을 제정하고 학생지도를 본단식위원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생의 품행을 지도하여야 하며 학생의 정치적 활동에 있어서는 엄정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20장 제86조(표창)=이 장의 표창은 학생에 대하여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서 총장이 직접 수여한다. 다만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집단적 활동에 대하여는 학생처장이 수여한다.

제20장 제87조(신분조치)=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의하여 제적된자는 1년이내에 재입학할 수 없다.

제13장 제59조 제1항 제5호와 제20장의 단지조항을 위하여 직접 퇴학을 권할수 있다.

제20장 제85조 (학생지도)=총장은 매학년초에 학생의 지도지침을 제정하고 학생지도를 본단식위원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생의 품행을 지도하여야 하며 학생의 정치적 활동에 있어서는 엄정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20장 제86조(표창)=이 장의 표창은 학생에 대하여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서 총장이 수여한다. 다만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집단적 활동에 대하여는 학생처장이 수여한다.

제20장 제87조(신분조치)=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의하여 제적된자는 1년이내에 재입학할 수 없다.

제13장 제59조 제1항 제5호와 제20장의 단지조항을 위하여 직접 퇴학을 권할수 있

新入生 2천5백명 誕生

信念에 찬 未來로 발돋움

鄭總長 "創造的 동국인" 당부

◇3일 체육관에서 열린 입학식 광경.

○……속은 大學의 관문을 돕고 本校에 入學한 새新입생 2천5백명이 3일 오전 11시 체육관에서 盛大히 열렸다. 서울本校 전에는 鄭在覺총장, 朴潤宗……○
○……이사장을 비롯한 財團·宗團·同窓會관계인사, 各學處長, 교수, 직원과 2천여명의 學父兄이……○
○……참석, 新入生들을 다음껏 축하해 주었다.

본교 8개대학 50개학과에 걸친 신입생 입학식은 三綠依慶수상으로 시작, 鄭총장의 「創造的 동국인이 되자」에 이어 수석합격자 咸基昊(대전고 전산과 · 경상대) 군의 입학선서가 있었다. 이어서 鄭총장 식사를 통해 『73년의 傳統을 갖춘 본교의 자랑스런 동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모든일에 自律的으로 임해줄것』을 당부했다.

또한 朴상장은 치사에서 『학문의 길은 전문적지식을 배우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동국인이 필요로 하는것은 참다운 인간지로 창조적마음을 지향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科別 자율적으로 選出
代議員會 개최키로

總學生會부활 推進委員會 員會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오는12일(水)에는 代議 총학생회 부활을 위한 대의원 선출을 위해 각 학과별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대의원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全國學生會」 발족두
綜合發展 계획 諸問題 논의

「기획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委員長=鄭在覺총장 ◇副委員長=鄭鍾根기획실장 ◇委員=▲總務處長 金允植(문리대) ▲學生處長 朴容喜(문리대) ▲教務處長 金炳旭(문리대) ▲企劃調整室長 金慶泰(문리대) ▲入學管理本部長 李鍾雨(문리대) ▲徐載鎭교수(문리대) ▲張炳喆교수(문리대) ▲徐廷旭교수(문리대) ▲金貞培교수(문리대) ▲洪性仁교수(문리대) ▲金炳旭교수(문리대) ▲李相佰교수(문리대) ▲金昌洙교수(문리대) ▲金昌洙교수(문리대) ▲金昌洙

論壇

佛敎와 기독교의 對話

序論

필자 : M·로드리고 譯 李熙昇

이글은 마가엘 로드리고박사 (Michael Rodrigo·中阿含經 農村에서 學位를 取得한 스리랑카의 神父. 지금은 그곳의 佛敎的 友省의 過程에서 佛敎徒의 德과 價值를 살펴봄으로써 아시아 신부들의 오늘날 佛敎論文으로 불교와 기독교간의 對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주장하며 이에대한 방법을 추구하고있다。 이에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가 있기를 바라는 글로 발췌하여 소개한다。 <譯者註>……

本論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서 사제는 종교 전과 같이 모든 사물들을 그의 관점의 영역내에 두었으며 와 믿었다。 우리가 지역적 국제적 의 제계적 관점에 대하여 이 해에 관심을 갖게되리라는 것도 확증할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삶이 가장우선되는 문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전교적 문제도 양보할 수 없다。』 (Advent 10項)

뚜껑에서 열린 UNCTAD (A·A·B·C) 는 우리에게 다음 과같이 말하고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긴급한 인간 문제들에 의해 수세기에 걸쳐 꽃피우며 정수된 인간적 삶의 가치와 목적을 재발견하고 그 가치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가능한 힘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종교적 확신에 따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서로 도와야 한다。』

우리는 보다높은 개인적자유와 사회적정의한 건을 종교적 문제로 다루 가지않으면 안된다。

對話의 必要性

우리는 『보다높은 개인적자유와 사회적정의한 건을 종교적 문제로 다루 가지않으면 안된다。』 (Advent 10項)

뚜껑에서 열린 UNCTAD (유엔 무역 개발회의) 가 개최되었다。 (로마 리고저)는 뚜껑에서 UNCTAD Any Decision이라고 편찬하고 있다) 최근에 마닐라에서 개최된 남북회의 제5차회의는 수많은 인 의 아들들을 비인간적인 조건 낮은 일과, 소외와 질병 민주주의 아닌 보 로 몰아넣는 世界的인 技術偏

우리와 함께 보다높은 개인적자유와 사회적정의한 건을 종교적 문제로 다루 가지않으면 안된다。

對話의 方法

우리는 『보다높은 개인적자유와 사회적정의한 건을 종교적 문제로 다루 가지않으면 안된다。』 (Advent 10項)

뚜껑에서 열린 UNCTAD (유엔 무역 개발회의) 가 개최되었다。 (로마 리고저)는 뚜껑에서 UNCTAD Any Decision이라고 편찬하고 있다) 최근에 마닐라에서 개최된 남북회의 제5차회의는 수많은 인 의 아들들을 비인간적인 조건 낮은 일과, 소외와 질병 민주주의 아닌 보 로 몰아넣는 世界的인 技術偏

우리는 보다높은 개인적자유와 사회적정의한 건을 종교적 문제로 다루 가지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보다높은 개인적자유와 사회적정의한 건을 종교적 문제로 다루 가지않으면 안된다。』 (Advent 10項)

뚜껑에서 열린 UNCTAD (유엔 무역 개발회의) 가 개최되었다。 (로마 리고저)는 뚜껑에서 UNCTAD Any Decision이라고 편찬하고 있다) 최근에 마닐라에서 개최된 남북회의 제5차회의는 수많은 인 의 아들들을 비인간적인 조건 낮은 일과, 소외와 질병 민주주의 아닌 보 로 몰아넣는 世界的인 技術偏

우리는 『보다높은 개인적자유와 사회적정의한 건을 종교적 문제로 다루 가지않으면 안된다。』 (Advent 10項)

뚜껑에서 열린 UNCTAD (유엔 무역 개발회의) 가 개최되었다。 (로마 리고저)는 뚜껑에서 UNCTAD Any Decision이라고 편찬하고 있다) 최근에 마닐라에서 개최된 남북회의 제5차회의는 수많은 인 의 아들들을 비인간적인 조건 낮은 일과, 소외와 질병 민주주의 아닌 보 로 몰아넣는 世界的인 技術偏

自由와 社會正義 위해 協力필요

對話만이 두 宗敎의 敎義에 대한 상호이해 方法

倫理的 文化로 서로 성격 一致해

탐욕은 부도덕의 가장 큰 형태

〈佛敎大·佛敎科〉

結論

1970년 비뇌엘에서 열린 神學會議에서 필왕 남을 6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위대한 그리스도로써 UNCTAD 는 뚜껑에 의해 제정된 오 늘날 UNCTAD 는 뚜껑에 의해 제정된 오 늘날 UNCTAD 는 뚜껑에 의해 제정된 오 늘날